

고전 시문을 통해 본 파초(*Musa basjoo*)의 식재 의미와 설계용도(Design Use)

홍형순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Meaning of Plantain(*Musa basjoo*) Planting and Design Use through Classic Poetry and Prose

Hong, Hyoung-So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Joong-Bu University

ABSTRACT

By studying the classic poetry and prose with a theme of Plantain, I would like to study why Plantain has been planted in our traditional garden for a long time. Also, through this study, I want to find when Plantain was introduced to in our country. We use description study method for studying the classic poetry and prose with a theme of Plantain. As a result, we found a few things like below.

First, the introduction of Plantain to our country traces back to unified Silla in the poetry of Choe Chi Won. Also, Plantain was planted and loved generally as a general garden plant in the middle of Goryeo through poetry and paintings.

Second, the meaning of Plantain is like this. 1) It means development and enjoyment of arts of summer because the leaves of Plantain were used for drinking alcohol and writing and poetry instead of papers. 2) In Buddhism, Plantain was thought to awaken 'gong(空)', 'mua(無我)', and 'brevity' of lesson of Buddha by the special shape and the image of falling rain to the leaves. Also, it was used widely in Buddhist temples because of the story of 'Hye ga dan bi(慧可斷臂)'. 3) In Confucianism, it is the emblem of lesson 'a wise man tries to be strong and tries not to stop following to God'(自強不息). 4) The large leaf of Plantain is called 'bongmi(鳳尾)' thanks to the image of likeness with tails of Bongwhang(鳳凰).

Third, design use of Plantain is like this. 1) The large leaf of Plantain was used for giving an image of freshness and brightness in the garden in summer. 2) Our ancestor thought 'the sound of falling rain to Plantain'(芭蕉雨聲) as a picturesque sound in summer. Also, Plantain was highly utilized because our ancestor thought Plantain is the best plant for implementing 'soundscape'. Thus, the most characteristic use of several design uses is 'acoustic use'. 3) Plantain was also planted in a indoor pot for viewing. 4) Plantain was used for making food and medicine in the palace and private house as a practical use.

The limit of this study is that I mainly use the text translated into Korean of database of overall Korean classics. We hope the new things related to this study would be added up to this study by translating original texts into Korean more.

Key Words : Garden Plant, Visual Use, Acoustic Use, Practical Use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전시문에 대한 고찰과 해석을 통해 파초가 우리의 전통정원에 오랫동안 즐겨 가꾸어진 배경과

그 설계용도(design use)를 고찰하고자 진행되었다. 또 이러한 고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파초가 도입되어 널리 애호된 시기도 함께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파초를 주제로 한 고전시문을 고찰하고 해석하는 기술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초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시기는 최치원의 시를 통해 통일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여러 시문과 그림을 통해 고려시대 중기에 이미 파초는 정원식물로 널리 식재되고 애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파초에 내재된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파초 잎은 종이의 대용물로 글씨나 시를 쓰기도 하였고 술잔으로 사용되는 등 여름날의 수양과 풍류의 의미를 갖는다. 2) 파초는 ‘혜가단비’의 고사에 의해 불가에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식물로 취급된다. 또, 파초 특유 형태와 생육특성, 파초 잎에 빗방울이 흠뻑 젖어지는 모습 등은 부처의 가르침인 ‘공’과 ‘무아’, ‘덧없음’을 일깨우는 각성물로 받아들여졌다. 3) 유가에서 파초는 “군자는 하늘을 따라서 스스로 굳세고자 노력하며 쉬지 않는다(君子以 自強不息)”라는 가르침의 표상이었다. 4) 파초의 넓고 긴 잎을 봉황의 꼬리에 비유하여 ‘봉미’라고 하였다. 따라서 파초 잎은 준귀함의 존재의 상징인 봉황을 의미하므로 책가도, 문자도 등 민화의 소재로 즐겨 채택되었다.

셋째, 파초의 설계용도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파초의 넓고 푸른 잎으로 인해 여름철 정원에 녹음과 청량감을 제공하는 ‘시각적 용도’로 활용되었다. 2) 옛 사람들은 여름철에 듣는 ‘파초우성(芭蕉雨聲)’을 운치 있는 소리로 여겼고, 파초가 이러한 ‘사운드 스패이스(soundscape)’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식물소재라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파초의 여러 설계용도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용도로 ‘청각적 활용’을 들 수 있다. 3) 파초는 화분에 식재하여 실내에서 관상용으로도 활용하였다. 4) 파초는 궁중과 민간에서 약재와 식재료 등 실용 목적으로도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된 자료 중 국역된 텍스트를 위주로 하였다는 점이다. 추후 여타의 원문 자료들에 대한 국역 작업이 진행됨으로써 본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정원식물, 시각적 활용, 청각적 활용, 실용적 활용

I. 서론

파초는 다년생 초본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관상용으로 들여와 우리나라 남부지방, 제주도 등지의 노지에서 월동이 되는 관엽식물로서 귀화식물이다(김태정, 1996). 목본과 초본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육하는 식물 중 파초 잎의 크기에 비교할만한 것은 없다. 한여름에 푸르고 싱싱한 파초의 넓은 잎은 청량감을 제공하므로 ‘한여름의 친구’이자 ‘풀 중에 으뜸’으로 초왕(草王)이라고도 하며(이선, 2006) 혹은 초제(草帝)라고도 한다.

당대(唐代)의 시인이자 화가인 왕유(王維, 701~761)는 후한시대(202 B.C.~220 A.D.)의 청백리인 원안(袁安)의 고사를 묘사한 「원안와설도(袁安臥雪圖)」를 남겼다. 이 그림 속에는 쌓인 눈을 배경으로 푸른 파초 아래에 누워있는 원안이 그려져 있다. 실제로는 한 겨울에 파초가 무성하게 생육할 수 없지만 화가는 푸른 파초를 통해 원안의 곧고 청렴한 풍격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렇듯 파초에는 각별한 의미들이 존재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파초는 오랫동안 정원과 사찰에 즐겨 식재되어 왔고, 그림과 시의 제재가 되어 왔다. 그러나 파초가 어느 때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 널리 애호된 시기를 밝힌 명확한 문헌자

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유의 향토 수종이 아닌 파초가, 이국적인 남방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정원에 오랫동안 즐겨 가꾸어진 배경과 그 설계용도(design use)를 고찰하는데 있다. 이러한 고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파초가 도입된 시기와 널리 애호된 시대적 배경도 함께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파초는 오래 전부터 선비들이 애호해온 정원식물 중의 하나이다. 정원에 도입된 식물요소로서 애호된 것에 더해 파초를 시문으로 읊고 그림으로 그려 ‘파초시’와 ‘파초도’라는 문예유형을 남기기도 했다. 파초는 유가(儒家)에 못지않게 불가(佛家)에서도 애호되었다. 파초는 여러 사찰의 여름경관을 대표하는 식재요소로 활용되어 왔으며, 여러 사찰의 벽화에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선인들이 파초를 통해 새기고자 한 각별한 의미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파초 식재

를 통해 얻고자한 구체적인 효용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파초를 주제로 한 고전시문을 고찰하고 해석하는 기술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문헌조사를 위한 주된 텍스트(text)는 한국고전번역원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http://db.itkc.or.kr>)에 탑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초'를 주제로 검색된 문헌자료들에 담겨있는 의미, 용도 등을 해석하고 고찰하였다. 또, 이러한 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파초의 의미와 활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회화자료를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파초의 전래

최치원(崔致遠, 857~?) 당(唐)나라에서 벼슬하였고, 신라 헌강왕(憲康王) 11년(885년)에 귀국하였다. 그는 당나라에 머문 동안의 저작을 모아 헌강왕에게 진헌(進獻)하였는데, 이 중 전하는 것이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이다. 이 자료는 문집의 형태로 전해지는 신라시대 유일의 자료이다. 이 문집의 제20권에 실린 '화금원의증참산청상인(和金員外贈嶠山淸上人)'이라는 시에는 "... 勸君休問芭蕉喻 看取春風撼浪花"라는 구절이 있다(<http://db.itkc.or.kr>¹). 이 시로 인해 우리나라에 파초가 소개된 것은 적어도 통일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21권 충렬왕(忠烈王) 3년(1295년) 조에도 "꽃구경을 위한 연회를 향각(香閣)에 베풀었는데, 향각 뒤에 따로 장막을 설치하고 크게 여악을 벌였다. 중랑장 문만수(文萬壽)가 물을 끌어들이어 재주를 부리고 청랍전(靑蠟絹)을 오려서 파초를 만드니, 왕이 기뻐하여 백금 3근을 하사하였다"(<http://db.itkc.or.kr>²)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송(宋) 나라 '산수원림(山水園林)'의 영향으로 궁궐이나 민간에서도 화려한 정원을 만들었다고 하나 그 구체적인 형태를 소개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한국사연구회, 2007). 그러나 시문을 통해서도 당대의 정원의 정경을 묘사한 여러 작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고려 중기의 대문호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文集)』, 고려 말기의 학자 이곡(李穀, 1298~1351)의 『가정집(稼亭集)』 등에서 파초를 읊은 시가 여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가정집』 제16권에 있는 '차운하여 순암(順菴)에게 답하다'라는 율시(律詩)이다(<http://db.itkc.or.kr>³).

... 窓外芭蕉饒夜雨 / 창밖에 지난밤 비에 흠뻑 젖은 파초 잎이요
盤中苜蓿富春蔬 / 소반에 봄에 지천으로 나는 목숙 무침이라 ...



a: 「아집도」



b: 「아집도」 중 파초 부분

그림 1. 「아집도(雅集圖)」。 작자미상, 고려, 14세기, 비단에 채색, 각 139.0×78.0cm (출처: 호암미술관, 2007)

작자미상으로 14세기에 그려진 『아집도(雅集圖)』는 고려시대 정원의 모습과 그 이용행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이다. 두 쪽의 그림 속에는 큰 저택 내에 조성된 화려한 정원에서 사대부들이 그림을 감상하고 시를 쓰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정원 내 식물은 오동나무 등과 함께 파초, 종려 등 남방식물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그림 1 참조). 18세기 이후에 도시문화의 활성화와 사대부의 원예취미로 인해 파초 식재가 널리 유행했다는 견해(정민, 2007; 노재현 등, 2010)도 있으나, 여러 시문과 회화를 통해 이미 고려시대에 파초는 보편적으로 애호된 정원 식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파초에 내재된 의미

1) 수양과 풍류의 의미

(1) 종이의 대용품으로서의 의미

파초의 잎은 넓고 그 표면이 매끈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종이의 대용품으로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규경(李圭景, 1788~?)이 편찬한 백과 사전류의 저술인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중 「석전잡설(釋典雜說)」에 「패엽(貝葉)에 불경을 쓴 것에 대한 변증설」 편에는 종이가 없던 상고 시대에 그 대용물로 죽간(竹簡)이나 감나무 잎, 파초 잎을 사용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http://db.itkc.or.kr⁴).

… 회소(懷素)는 파초잎을 사용하였으며, 진미공의 『비급(秘笈)』에는 “회소가 가난하여 글씨 쓸 종이가 없자, 일찍이 고향 마을에 파초 만여 그루를 심어 파초 잎을 가지고 붓 휘두를 자료로 삼고, 암자 이름을 녹색암(綠泉菴)이라 하였다…”

회소의 고사로 인해 글씨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파초의 잎은 각별한 아이콘(icon)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인한 유배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다섯 명의 제자에게 각각 절구(絶句) 한 수씩을 지어 주었다. 이 시에는 각자의 거주지에 대한 특징을 묘사하여 후일에 서로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이 중에서 글씨에 능한 황 동자 정길(黃童子廷吉)에게는 당나라 때의 승려인 회소가 명필이 되기까지 파초 잎에 글씨를 연습한 고사를 인용한 시를 주었다. 『약천집(藥泉集)』에 실려 있는 시는 다음과 같다(http://db.itkc.or.kr⁵).

君家何在弄川邊 / 그대의 집 저 능천 가에 있는데
滑石平鋪勝綺筵 / 매끄러운 돌 평평하여 비단 자리보다 낫구려
須向此中臨八法 / 이 가운데에서 팔법을 임서(臨書)해야 하니
何愁不得種蕉田 / 어찌 파초를 밭에 심지 못함 걱정하라

황 동자의 집이 오룡천(吾弄川) 가에 있었으며, 또 글씨를 잘 썼다. 이러한 고사를 바탕으로 종이가 널리 사용된 후대에도 파초 잎에 글씨를 쓰며 더운 여름날을 보내는 것이 선비들이 즐기는 운치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음은 조선 전기의 문신인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문집인 『사가집(四佳集)』 중 「사가시집」 제29권에 수록된 ‘자고 일어나다’라는 시이다(http://db.itkc.or.kr⁶).

園中桃李自成蹊 / 동산의 복사꽃 오얏꽃엔 절로 길이 났는데
睡起南窓正午鷄 / 자고 일어나니 남창엔 닭 소리가 한창일세
却怪詩情清似水 / 시 생각이 물처럼 맑은 게 하도 괴이하여
芭蕉葉上又新題 / 파초 잎 위에다 또 새로운 시를 적어보네



그림 2. 「포의풍류도」. 김홍도, 18세기 후반, 종이에 수묵담채, 28.0×37.0cm (출처: 유홍준과 이태호, 2003)

더운 여름철에 파초 잎에 글씨를 쓰며 지내는 운치는 후대에도 계속되었다.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의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에는 이러한 운치가 잘 표현되어 있다. 그림에는 “종이창, 흙벽으로 된 집, 평생토록 벼슬 앓고 그 가운데서 읊조리리”(유홍준과 이태호, 2003)라는 화제가 있다. 그림 속 인물은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가 입는 옷인 ‘포의’ 차림에 맨발을 하고 있어 매우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서화와 책, 고자기(古磁器), 고검(古劍), 술이 담긴 호리병 등을 볼 수 있어 이 인물의 품모와 취향을 알 수 있다. 주 인공은 비파를 연주하고 있으나, 붓, 벼루와 먹이 준비되어 있기에 흥이 돋으면 언제든지 파초 잎에 시를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그림 2 참조).

이 밖에도 파초는 중국 당대(唐代)의 시인인 위응물(韋應物, 737~804)이 만날 수 없는 동생을 그리워하며 파초 잎에 편지를 쓴 고사로 인해 형제애를 상징하기도 한다(이선, 2006; 조성진과 조영열 역, 2004). 이렇듯 파초의 넓고 매끄러운 파초의 잎은 선비들이 항상 가까이 해야 할 지필묵 중 종이의 대용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풍류를 위한 술잔으로서의 의미

파초의 잎이 무성해지는 시기는 한여름의 무더위가 한창일 무렵이다. 무더운 여름날 넓고 유연한 파초의 잎을 술잔 삼아 즐기는 것이 옛 사람들의 풍류이기도 하였다. 조선 중기에 시문과 글씨에 능해 송도삼절(松都三絶)로 불린 최립(崔崐, 1539~1612)의 시문집인 『간이집(簡易集)』 제8권의 「환조록(還朝錄)」에는 파초 잎을 술잔에 대신하는 풍류를 묘사한 시를 볼 수 있다(http://db.itkc.or.kr⁷).

김영부(金領府) 저택의 연회(宴會)에서
… 具取家人鼎俎間 / 집안사람들 함께 모아 큰 잔치를 열었다오
桂醞薑愁蕉葉脆 / 가냘픈 파초 잎 견디 별과 술잔 속의 제운이요 …

2) 종교적 의미

중국 불교 선종의 초조(初祖) 달마(達磨)에게 엄동설한에 신광(神光)이라는 스님이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였다. 면벽한 달마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신광은 눈 속에서 추운 겨울밤을 지새웠다. 신광은 구도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자신의 칼로 왼쪽 팔을 잘랐는데 이때 쌓인 눈 속에서 파초 잎이 솟아나 잘려진 팔을 받쳤다고 한다. 이에 달마는 신광을 제자로 받아들여 혜가(慧可)라는 법명을 주었으며, 후에 혜가는 중국 선종의 제2대 조사가 되었다. ‘혜가단비(慧可斷臂)’라는 이 고사는 여러 사찰의 벽화에 널리 그려지게 되었고, 이를 ‘혜가단비도(慧可斷臂圖)’라 한다.

이러한 고사를 배경으로 파초는 사찰에 즐겨 식재된 초화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음은 고려 말의 학자인 이색(李穡, 1328~1396)의 『목은집(牧隱集)』 중 「목은시고」 제29권에 실린 시이다(http://db.itkc.or.kr⁸⁾).

… 君看碧眼老胡僧 / 그대여 한번 보소 푸른 눈 오랑캐 늙은 중을
雪中自放無邊春 / 눈밭에서 끝없는 봄이 절로 피게끔 안 했던가 …

경상북도 청도군에 소재한 운문사 경내에서도 「혜가단비도」를 비롯해 파초가 그려진 벽화를 볼 수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를 저술하기도한 고려시대의 학승 일연(一然, 1206~1289)은 충렬왕 때 운문사(雲門寺)의 주지가 되어 왕에게 법을 강론하기도 하였다. 젊은 시절의 일연을 그린 그림 속에도 푸른 파초가 있으며, 동자들이 파초 아래에서 그림을 공부하는 벽화도 있다(그림 3 참조).

‘혜가단비’의 고사를 차치하더라도 파초의 형태와 생육특성은 여러 면에서 불가의 가르침과 통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파초는 많은 꺾질로 싸여 있으나, 속은 비어 있다. 즉, 심재(心材)가 없으며, 이는 불가의 ‘공(空)’, ‘무아(無我)’ 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파초는 무성하게 푸른 잎을 피우며 크게 자라지만 추위가 오면 이내 사그라진다. 또, 왕성하게 생육하다가 열매를 맺으면 시들어 버린다. 이는 불가에서 헛된 욕망을 경계하는 것과도 통한다. 불가에서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미미한 즐거움을 파초 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흩어지는 것과 같은 덧없음에 비유하기도 한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유명을 달리한 벗의 제문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을 파초에 비유한 부처의 가르침을 인용해 서술한 바 있다. 다음은 그의 저술총서인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중 「간본 아정유고」 제5권에 실린 ‘우인(友人)에게 드리는 제문’이다(http://db.itkc.or.kr⁹⁾).

“… 저 부처님의 깨우침에 ‘인생의 사생이 포말(溲沫)과 파초(芭蕉) 같다’고 하였으니, 변멸(變滅)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말이다. 그러나 포말은 잘 썩으면서도 계속해 일어날 줄 알고, 파초는 묵은 뿌리가 있어 피어오를 듯이 생기를 머금고 있지만, 이제 그대의 포말은 한번 썩짐으로 그만이요, 그대의 파초는 다시 푸르기 어렵다. …”

이렇듯 혜가단비의 고사는 여러 사찰의 벽화로 그려졌고, 그림의 중심에는 파초가 등장한다. 또, 파초의 생육특성과 파초 잎에 빗방울이 흩어지는 모습은 부처의 가르침을 일깨우는 각성물이기도 했다. 이러한 연유로 파초는 여러 사찰에 즐겨 식재된 초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자강불식의 의미

자강불식(自強不息)이란 스스로 힘써 노력하며 쉬지 않는다는 의미의 한자성어이다. 그 원전은 『주역(周易)』의 건괘(乾卦) 상전(象傳)에 “하늘의 움직임은 곳곳하다(天行健). 군자는 하늘을 따라서 스스로 굳세고자 노력하며 쉬지 않는다(君子以自強不息)”(김인환 역해, 2006)에 있다. 즉, 군자는 대자연의 질서를 본받아 스스로 심신을 수련하여 지혜와 품성, 도덕을 닦는데 힘써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 송나라 때 횡거(橫渠)는 파초에서 자강불식의 의미를 새긴 바 있다. 그는 “파초의 심이 다하여 새 가지가 필치거든, 새로 말린 새 심이 은연중 뒤를 따르나니, 원컨대 새 심으로 새 덕 기르는 걸 배우고, 이내 새 잎으로 새 지식 넓힘을 따르려다(芭蕉心盡展新枝 新卷新心暗已隨 願學新心養新德 旋隨新葉起新知)”라고 했으며, 웅강대(熊剛大)의 주설(註說)에 “새 심으



그림 3. 청도 운문사 경내의 벽화 (출처: 필자 사진)

로 새 덕을 기른다는 것은 덕성을 높이는 공부에 해당하고, 새 것으로 새 지식을 넓힌다는 것은 학문을 말미암는 공부에 해당한다(新心養新德 尊德性工夫也 新葉起新知 道問學工夫也)”고 하였다(http://db.itkc.or.kr⁻¹⁰).

이후 여러 문인들은 파초로 부터 자강불식의 의미를 새긴 파초시와 파초도를 남기게 된다. 다음은 서거정의 『사가집』 중 「사가시집」 제45권에 실린 ‘파초라는 시이다(http://db.itkc.or.kr⁻¹⁰).

如何枝葉捲還舒 / 어이하여 지엽을 말았다 폼다 하는가
 舒捲由來得自如 / 펴고 마는 걸 원래 자유로이 하고말고
 欲學新心長新德 / 새 맘으로 새 덕 기르는 걸 배우고파라
 此言吾欲問橫渠 / 이 말을 내 다시 횡거에게 묻고 싶구나

다음은 조선 중기의 학자 조익(趙翼, 1579~1655)의 시문집인 『포저집(浦渚集)』 제1권에 실린 영사(詠事) 26수 중 ‘파초(芭蕉)를 노래하다’라는 시이다(http://db.itkc.or.kr⁻¹¹). 여기에도 파초의 생육과 성장과정을 관찰하며 횡거의 깨우침에 깊이 공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전에 횡거(橫渠) 선생의 파초 시를 보긴 하였으나, 그때는 이 시가 얼마나 친절한지를 아직 알지 못하였다. 금년에 파초 하나를 대청 앞에 심어 놓고 살펴보니, 일단 하나의 잎사귀가 활짝 퍼져서 사망으로 드리워지면 또 새 잎사귀가 마치 채찍처럼 속에서 돌돌 말려 곧장 위로 뿔뿔 나왔고, 이 잎사귀가 또 점차 커져서 저번처럼 되면 또다시 새 잎사귀가 뿔뿔 나왔는데, 이러한 현상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곤 하였다. 내가 이것을 보고서 비로소 횡거가 시를 지은 그 뜻이 얼마나 친절한지를 알고는 마침내 느낀 점이 있어서 시를 지었다.

前葉纒舒後葉抽 / 앞 잎사귀 드리우면 뒷 잎사귀 벌써 뻗죽
 旋抽旋暢不曾休 / 뿔뿔 나오고 활짝 퍼짐이 계속 이어지나니
 吾人進學須看此 / 우리도 이것을 보고 모쪼록 학문을 발전시켜
 勉勉新功日日求 / 날로 열심히 추구하며 새로운 경지 이뤘으면

다음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장유(張維: 1587~1638)의 시문집인 『계곡집(谿谷集)』 제25권에 ‘혼자 쓸쓸히 지내면서 아무렇게나 읊어 본 시 십 수(索居放言十首) 중 10번째 시이다(http://db.itkc.or.kr⁻¹²). 이 시에는 파초가 단순한 감상물이 아니며 이에 더해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花卉非爲目 / 화초는 보려고만 있는 것이 아니요
 物理可玩闕 / 그 속에 담긴 이치 음미해야 하거니 …

정조(正祖, 1752~1800)의 저술과 강론 등을 집대성한 『홍재전서(弘齋全書)』 중 세손(世孫) 시절의 시문을 모아 편집한



그림 4. 「정조대왕필파초도(正祖大王筆芭蕉圖)」, 정조, 18세기, 종이에 먹, 84.2×51.3cm, 동국대 박물관 (출처: 이선, 2006)

「춘저록(春邸錄)」 제2권에도 파초의 자강불식의 의미를 담은 ‘섬돌의 파초라는 시가 있다(http://db.itkc.or.kr⁻¹³). 이와 함께 정조가 세손시절에 그린 파초도가 전해지고 있어 왕가에서도 파초를 즐겨 식재하였고 그 의미를 새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참조).

庭苑媚春燕 / 정원에 봄풀이 아름다우니
 綠蕉新葉展 / 푸른 파초가 새로 잎을 펼치었네
 展來如簾長 / 잎을 펼치면 길기가 비 같으니
 托物大人勉 / 사물에 의탁해 대인이 되길 힘써야지

4) 기타

넓고 길쭉한 파초 잎의 형태는 봉황의 꼬리를 닮았다고 하여



a: 봉황을 그린 민화 (출처: 허균 등, 2004)



b: 「책가도」 병풍 중 부분 (출처: 유홍준과 이태호, 2003)

그림 5. 민화 속의 봉황과 파초

‘봉미(鳳尾)’라고도 한다. 옛 사람들은 바람에 너울거리는 파초 잎을 통해 실제로는 볼 수 없는 봉황을 연상하였을 것이다. 고려 시대의 문인 이규보는 “... 파초잎 창 앞에서 봉황새 꼬리처럼 길구나(蕉葉當窓鳳尾長) ...”라고 읊었다(http://db.itkc.or.kr¹⁴). 고귀한 존재를 상징하는 봉황을 표현하는 아이콘(icon)으로서 파초 잎은 책가도와 문자도 등 민화에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그림 5 참조).

3. 파초의 용도

1) 녹음을 이용한 시각적 활용

파초의 가장 큰 특징은 이국적인 형태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우리나라에 생육하는 수목과 초화를 막론하고 잎의 크기에 있어서 파초에 견줄만한 것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정원과 사찰에 여름경관을 대표하는 식물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조선 초기의 문신인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문집인 『점필재집(佔畢齋集)』 중 시집 제7권에 실린 ‘엄천사에서 낮잠을 자다(嚴川寺午睡)’라는 시에도 사찰에 식재된 파초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http://db.itkc.or.kr¹⁵).

... 儻然午睡無人覺 / 언뜻 낮잠이 들었으나 깨우는 사람은 없고
只有林間婆餅焦 / 숲 사이의 파초만 너울너울 춤을 추누나

파초의 아명(雅名)은 녹천(綠天)인데, 잎이 크고 넓어서 우러러보면 녹색의 하늘처럼 보이기 때문이다(조성진과 조영열 역, 2004). 정조 때 문신인 이서구(李書九)는 파초의 녹음을 애호하였고, 그의 당호를 ‘녹천관(綠天館)’이라 하였다.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 1737~1805)은 55세에 안의현감으로 부임하였고, 이 당시 지은 건물이 ‘하풍죽로당(荷風竹露堂)’이다. 연꽃 향이 바람에 날리고 대나무 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의미의 이 건물 당호와 기문은 연암 자신이 지었으며, 그 기문인 「하풍죽로당기(荷風竹露堂記)」가 『연암집(燕巖集)』 제1권에 실려 있다. 이 기문은 건물 주변의 지당, 계류, 수목과 초화 식재 등 정원 세부 구성까지도 연암의 구상대로 조성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 “... 뜰 가운데는 열한 뿌리의 파초가 있어, 이 당을 나가지 않고도 사계절의 경물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http://db.itkc.or.kr¹⁶)는 구절로 볼 때, 파초는 ‘하풍죽로당’의 여름 경관을 대표하는 식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파초의 푸르고 싱싱한 모습과 넓고 유연한 잎이 바람에 너울거리는 모습은 더운 여름날 청량감을 제공하기에 적격이다. 이러한 파초의 특성을 활용하여 옛 사람들은 여름철 정원 내에 싱그러움과 푸름을 제공하는 시각적 요소로 파초를 즐겨 식재하였다.

2) 빗소리를 듣기 위한 청각적 활용

파초의 넓고 유연한 잎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증폭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 소리를 파초우성(芭蕉雨聲)이라고 하며, 그 운치를 읊은 원전은 당대(唐代)의 시인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야우(夜雨)’라는 시에는, “창밖에 밤비 내린 것을 알겠어라, 파초 잎에서 먼저 소리가 나누나(窓知夜雨 芭蕉先有聲)”라고 하였다(http://db.itkc.or.kr¹⁷).

조선 중기의 문인 허균(許筠, 1569~1618)은 속세를 떠나 한가하게 살다간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한정록(閑情錄)』을 편찬했는데, 그 내용은 한거(閑居)한 사람들의 사상, 일상사, 전해들은 이야기 등이 주를 이룬다(민족문화추진회편, 2004). 『한정록』 제6권 「아치(雅致)」 편에는 ‘운치 있는 소리(聲)’ 열 가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http://db.itkc.or.kr¹⁸).

소리(聲)의 운치에 대해서 논하는 자들이 계성(溪聲), 간성(澗聲), 죽성(竹聲), 송성(松聲), 산새 소리(山禽聲), 그윽한 골짜기에서 나는 소리(幽壑聲), 파초에 듣는 빗소리(芭蕉雨聲), 낙화성(落花聲), 낙엽성(落葉聲)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천지(天地)의 맑은 소리로 시인의 가슴을 울리는 것들이다. 그러나 참으로 심금을 울리는 소리로서는 마땅히 매화성(梅花聲)¹⁾으로 으뜸을 삼아야 할 것이다.

이 기록은 옛 선비들이 정원에서 단지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는 차원에 더해 ‘사운드 스패이스(soundscape)’에 까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른바 ‘천지의 맑은 소리’, ‘시인의 심금을 울리는 소리’를 즐기기 위한 식물 소재로 파초가 활용되었다. ‘파초우성’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우리나라의 정원에 파초를 식재한 것은 오래전부터 전해진 전통이었다. 즉, 파초우성의 풍류와 운치를 읊은 시문은 고려시대 후기로부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은 고려 말의 문신인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시문집인 『익재난고(益齋亂藁)』 제3권에 실린 ‘부질없이 짓다’라는 시이다(http://db.itkc.or.kr¹⁹).

... 池邊剪葦看雲影 / 못가에 갈대 베며 구름 그림자 구경하고
窓下移蕉聽雨聲 / 창 밑에 파초 옮기며 빗소리 들었네 ...

이외에도 고려 말기의 학자인 목은 이색(牧隱 李穡)의 부친인 이곡(李穀, 1298~1351)의 시문집인 『가정집(稼亨集)』 제16권의 ‘차운하여 순암(順菴)에게 답하다’라는 율시(律詩)에도 비 내린 날의 파초를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http://db.itkc.or.kr²⁰).

... 窓外芭蕉饒夜雨 / 창밖에 지난밤 비에 흠뻑 젖은 파초 잎이요
盤中苜蓿富春蔬 / 소반엔 봄에 지천으로 나는 목숙 무침이라

앞서 언급한 서거정은 파초를 제재로 하여 여러 수의 시를 남겼다. 특히 『사가집』 중 「사가시집」 제4권 시류(詩類) 중 ‘영

물(詠物) 43수’는 수목과 초화, 점경물, 동물과 가금류에 이르는 각종 정원요소를 읊은 시이다. 즉, 매화(梅花), 행화(杏花), 장미(薔薇), 작약(芍藥), 모란(牡丹), 이화(梨花), 해당(海棠), 산다화(山茶花), 자미(紫薇), 옥매(玉梅), 동백(冬白), 규화(葵花), 국화(菊花), 사계화(四季花), 백일홍(百日紅), 삼색도(三色桃), 금전화(金錢花), 옥잠화(玉簪花), 연화(蓮花), 척촉화(躑躅花), 거상화(拒霜花), 치자화(梔子花), 죽(竹), 난(蘭), 파초(芭蕉), 흰(萱), 회(檜), 만년송(萬年松), 오동(梧桐), 양류(楊柳), 단풍(丹楓), 포도(葡萄), 석류(石榴), 정자(棖子), 시자(柿子), 화합(華鶻), 금계(錦鷄), 여학(喉鶴), 면사(眠麪) 가산(假山), 괴석(怪石), 유리석(瑠璃石), 차거분(踰盆) 등 43종의 정원요소를 주제로 한 시이다. 여기에는 각종 식물요소들뿐 아니라 비둘기, 금계, 학, 사향노루 등 있어서 조선 전기 사대부가의 화려한 정원 수준을 짐작케 한다. 이 중에서 ‘파초우성’을 읊은 시는 다음과 같다(http://db.itkc.or.kr²¹).

養得靈苗扇影長 / 신령한 싹 길러 내니 부채 그림자 길어라
 風吹微綠細生香 / 푸른 잎에 바람 부니 향기가 살살 풍기네
 葉能舒卷何曾礙 / 잎은 능히 말고 퍼라 어찌 막힌 적 있던가
 心自通靈況有常 / 더구나 속은 절로 텅 비어 상도가 있음에라
 已喜丁東留夜雨 / 툄툄 밤비 소리 들림은 이미 기뻐했지만 /
 不堪零落顛秋霜 / 가을 서리에 떨어지는 건 전디기 어려워라 ...

양산보(梁山甫, 1503~1557)의 소쇄원(瀟灑園)을 새긴 목판도 속에서도 파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김인후(金麟厚, 1510~1560)가 지은 「소쇄원사십팔영시」 중 ‘적우파초(適雨芭蕉)’에는 파초 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은화살’에 비유하고 있다(최승범, 1998).

鐵落投銀箭 / 은화살을 던져 마구 떨어지니
 低昂舞翠綉 / 너울거리는 푸른 비단 춤이여 ...

조선 중기의 학자 최립(崔立, 1539~1612)의 시문집인 『간이집(簡易集)』 제6권 「초미록(蕉尾錄)」에 실려 있는 ‘승려의 시권에 제하다’는 시의 “파초에 듣는 빗소리 얼마간 상쾌해지는 데(小爽芭蕉雨) ...”(http://db.itkc.or.kr²²)라는 구절도 있다. 또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의 시 ‘송파수작(松坡酬酢)’은 칠월 이일에 매우 더워서 속히 서늘해지기를 기원하며 지은 시인데 여기에도 “... 파초잎에 빗소리 울리는 건 뜻에 맞지마는(快雨鳴蕉猶適意) ...”(http://db.itkc.or.kr²³)이라고 읊고 있다.

앞서 언급된 박지원 「하풍죽로당기(荷風竹露堂記)」에도 “... 가슴이 답답하고 생각이 산란하여 탕건이 절로 숙여지고 눈꺼풀이 무겁다가 파초의 잎을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갑자기 개운해지는 것은 시원한 소낙비 내린 낮이요, ...”(http://db.itkc.or.kr¹⁶)라고 파초우성에 대한 감회를 기술하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서유구(徐有榘, 1764~1845)도 파초우성에 대한 애호로 인해 자신의 거처를 ‘우초당(雨草堂)’이라 하였고, 그 기문인 ‘우초당기(雨草堂記)’에 파초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대한 감상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http://saloniere.blog.me/93651998).

지난 경자년(1780) 오월 나는 태극실 남쪽 작은 화단에 파초 너댓 그루를 심었더니 갑자기 심어 자 정도 자라서 저물녘이면 그늘이 창을 덮었다. 안석과 서가가 이 때문에 맑고 푸르러 기릴 만 했다. 이때 날이 매우 무더웠다. 나는 폐병을 앓아누워 있었는데, 땀이 줄줄 흐르고 기운이 빠져 계속 꾸벅 꾸벅 졸았다. 갑자기 심들 사이에 툄툄툄툄 소리가 들려오며 청량한 기운이 얼굴을 때리기에 일어나 보았다.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더니 빗방울이 종처럼 파초 잎을 치는 것이었다. 후드득 후드득 구슬처럼 흩어져 떨어졌다. 나는 귀를 기울여 한참을 들었다. 정신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명랑해져 병이 벌써 나았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문헌자료들을 통해 옛 선비들은 운치 있는 소리를 즐기기 위해 이른바 ‘사운드 스텐스케이프(soundscape)’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넓은 잎을 가진 파초가 가장 적절한 식물소재라는 점을 파악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식물소재로 파초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파초의 여러 설계용도(design use)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용도로 ‘청각적 활용’을 들 수 있다.

3) 분식(盆植)에 의한 실내 관상용으로 활용

다음의 글은 연암이 안의현감 시절에 쓴 ‘김우상(金右相)에게 올림’이라는 서간문으로 『연암집』 제3권 「공작관문고(孔雀館文稿)」에 실려 있다(http://db.itkc.or.kr²⁴).

지난 가을에 자녀와 남녀종들을 다 보내고 나니 관아가 온통 비었고, 몸에 딸린 것은 관인(官印)을 맡아 결을 지키는 동자 하나뿐인데, ... 홀로 매화 화분 하나, 파초 화분 하나를 동반하여 삼동을 났습니다. 옛사람 중에 매화를 아내로 삼은 이가 있었습니까만, 눈 내리는 날 푸른 파초는 마음을 터놓는 벗이 될 만하더군요, ...

이에 의하면 연암은 파초화분을 벗하여 추운 겨울을 지냈다는 내용이다. 즉, 파초를 화분에 심어 엄동설한에도 실내에서 파초의 싱그러움을 감상했다는 귀한 사례를 전하고 있다. 파초에 대한 지극한 애호심은 파초를 분식하여 동절기에도 그 푸름을 감상할 만큼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4) 기타 실용적 목적으로 활용

(1) 양우와 양어의 치료제

『산림경제』 제2권 「목양(牧養)」의 ‘소기르기(養牛)’에는 파초 뿌리의 즙은 아무리 심한 우역(牛疫)이라도 낫게 한다고 하였다. 또, “파초는 향촌(鄉村)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심어 두었다가 우역에 대비함이 가하다”(http://db.itkc.or.kr²⁵)고 하였다. ‘물고기 기르기(養魚)’ 편에도, “만약 물고기가 독기를 마시고 물 위에 하얗게 떠 있을 때는 급히 독수(毒水)를 빼내고 다른 새 물을 못에 끌어들인 다음, 파초(芭蕉) 잎을 많이 따다가 짓이겨 새 물이 들어오는 곳에 뿌려 고기가 마시게 하면 즉시 깨어난다”(http://db.itkc.or.kr²⁶)고 하였다. 물고기를 기르는데 있어 파초 잎의 효능은 『한정록』 제16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http://db.itkc.or.kr²⁷).

(2) 약용 및 식재료

파초는 약재로도 널리 쓰였다. 『승정원일기』 중 고종 31년(1894년) 12월 2일에 내의원(內醫院) 도제거(都提學) 의화군(義和君) 이강(李綱)의 계에는 “... 아뢰기를 피부에 바를 약은 파초즙(芭蕉汁)에 우황(牛黃)을 섞어서 지어 올릴 것이나 ...”(http://db.itkc.or.kr²⁸)라는 기록이 있다. 파초의 잎은 민간에서도 약재로 사용되었다. 『산림경제』 제3권 ‘구급(救急)’ 편에는 갓 난 소아(小兒)의 급병인 태독(胎毒)에 파초즙(芭蕉汁)이 좋다고 소개하고 있다(http://db.itkc.or.kr²⁹).

또, 파초의 어린 싹은 식재료로 사용되기도 했다. 『속동문선』 제1권 ‘양초부(養焦賦)’에는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 판경조윤(判京朝尹) 이후(李侯) 백옥(伯玉)에게 파초를 기르는 방법을 부(賦)의 형식을 빌려 전하고 있다. 이 내용 중에는 파초의 재배법뿐만 아니라 파초 나물의 조리법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http://db.itkc.or.kr³⁰).

紛敗葉之披離 / 묵은 잎 얽힌 사이에서
 森蘖芽之成行 / 새싹이 열기철기 나오리니
 操新刀而別繁 / 새 칼로 허튼 잎을 도려내고
 剝嫩心而盈筐 / 부드러운 속잎을 한 광주리 잘라내어
 滋五味而烹調 / 오미를 갖추어 삶고 조리할새
 雜辛椒與桂薑 / 후추랑 생강이랑 골고루 섞어
 含至腴於淡薄 / 그 기름지기도 담백한 맛
 勝熊膳與精羊 / 곰의 고기 양의 고기보다 낫도다

기후 조건상 파초의 재배에 유리한 제주도에서는 파초를 식재료로 활용한 전통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 지방의 전통음식인 ‘반치지’라는 장아찌가 있는데, ‘반치’는 파초의 제주도 방언으로 반치지는 파초지 즉 ‘파초 장아찌’를 의미한다(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08). 이외에도 제주도 향토음식으로 파초를 주재료 하는 ‘반치냉국’도 있다. 이렇듯 파초는 물고기와 가축의 약재, 소아병의 치료제, 음식 재료 등 실용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파초를 주제로 한 고전시문에 대한 고찰과 해석을 통해 파초가 우리의 전통정원에 오랫동안 즐겨 가꾸어진 배경과 그 설계용도(design use)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파초의 도입된 시대적 배경도 함께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초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시기는 최치원의 시를 통해 통일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여러 시문과 그림을 통해 고려시대 중기에 이미 파초는 정원 식물로 널리 식재되고 애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파초에 내재된 의미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파악할 수 있었다. 1) 파초 잎은 종이의 대용물로 글씨나 시를 쓰기도 하였고, 술잔으로 사용되는 등 여름날의 수양과 풍류의 의미를 갖는다. 2) 파초는 ‘혜가단비’의 고사에 의해 불가에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식물로 취급된다. 또, 파초 특유 형태와 생육특성, 파초 잎에 빗방울이 흘러지는 모습 등은 부처의 가르침인 ‘공’과 ‘무아’, ‘덧없음’을 일깨우는 각성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이유로 파초는 여러 사찰에 즐겨 식재되는 식물 요소로 자리 잡았다. 3) 유가에서 파초는 “군자는 하늘을 따라서 스스로 굳세고자 노력하며 쉬지 않는다(君子以自強不息)”라는 가르침의 표상이었다. 즉, 끊임없이 새잎을 피워내는 파초의 생육특성은 선비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자강불식’의 실체로 간주되었다. 4) 파초의 넓고 긴 잎은 봉황의 꼬리에 비유하여 ‘봉미’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파초 잎은 존귀함의 존재의 상징인 봉황을 의미하므로 책가도, 문자도 등 민화의 소재로 즐겨 채택되었다.

셋째, 파초의 설계용도(design use)는 크게 네 가지로 파악된다. 1) 파초의 넓고 푸른 잎으로 인해 여름철 정원에 녹음과 청량감을 제공하는 ‘시각적 용도’로 활용되었다. 2) 넓고 무성한 파초 잎은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옛 사람들은 여름철에 듣는 ‘파초우성(芭蕉雨聲)’을 운치 있는 소리로 여겼다. 즉, 파초는 ‘사운드 스펙트럼(soundscape)’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식물소재라는 것을 알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초의 여러 설계용도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용도로 ‘청각적 활용’을 들 수 있다. 3) 파초는 화분에 식재하여 실내에서 관상용으로도 활용하였다. 본고를 통해 확인한 연암 박지원의 기록은 엄동설한에도 실내에서 파초의 싱그러움을 감상했다는 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4) 파초는 실용 목적으로도 활용되었다. 궁중과 민간, 양우와 양어에 있어서 약재로 널리 활용되었다. 또 파초의 어린 싹은 나물이나, 장아찌, 냉국 등의 식재료로도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된 자료 중 국역된 텍스트를 위주로 하였다는 점이다. 추후 여타의 원문 자료들에 대한 국역 작업이 진행됨으로써 본 연구와 관련

된 새로운 내용들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주 1) 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된 텍스트에는 ‘매화성(賣花聲)’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매화성(梅花聲)’의 오기인 것으로 사료됨. 필자의 판단에 의해 수정하여 인용하였음.

인용문헌

1. 김인환 역해(2006). 주역.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 김태정(1996). 한국의 자원식물 V.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3. 노계현, 김영숙, 고여빈(2010). 조경식물 파초(*Musa basjoo*) 식재 양상과 그 의미.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2): 23-36.
4.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2008). 한국의 전통음식 10, 제주도. 서울: 교문사.
5. 민족문화추진회 편(2004). 한정록. 許筠. 『閑情錄』. 서울: 솔출판사.
6. 유흥준, 이태호(2003). 유희삼매: 선비의 예술과 선비취미. 서울: 학고재.
7. 이선(2006). 우리와 함께 살아온 나무와 꽃. 서울: 수류산방. 중심.
8. 정민(2007).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서울: 휴머니스트.
9. 조성진, 조영열 역(2004). 한시와 일화로 보는 꽃의 중국문화사. 中村公一. 中國の愛の花ことば. 서울: 뿌리와 이파리.
10. 최승범(1998). 산수화처럼 펼쳐지는 탈속의 시경. 문화와 나. 1998. 7.8. Vol.4. 삼성문화재단. pp. 22-24.
11. 한국사연구회(2007). 개경의 생활사. 서울: 휴머니스트.
12. 허균, 이경재, 이갑철(2004). 선인들이 남겨놓은 삶의 흔적들. 서울: 다룬세상.
13. <http://db.itkc.or.kr>(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
- 13¹.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M&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M&seojiId=kc_mm_a001&gunchalId=av020&munchelId=04&finId=036&NodeId=&setid=105251&Pos=0&TotalCount=718&searchUrl=ok.
- 13².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a004&gunchalId=av021&munchelId=01&finId=010&NodeId=&setid=985554&Pos=0&TotalCount=271&searchUrl=ok.
- 13³.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a031&gunchalId=av016&munchelId=01&finId=022&NodeId=&setid=986551&Pos=0&TotalCount=271&searchUrl=ok.
- 13⁴.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h010&gunchalId=av009&munchelId=01&finId=003&NodeId=&setid=15889&Pos=189&TotalCount=271&searchUrl=ok.
- 13⁵.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h048&gunchalId=av002&munchelId=01&finId=052&NodeId=&setid=15889&Pos=163&TotalCount=271&searchUrl=ok.
- 13⁶.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g028&gunchalId=av029&munchelId=01&finId=036&NodeId=&setid=15889&Pos=90&TotalCount=271&searchUrl=ok.
- 13⁷.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a023&gunchalId=av008&munchelId=05&finId=201&NodeId=&setid=3405630&Pos=2&TotalCount=271&searchUrl=ok.
- 13⁸.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e004&gunchalId=av029&munchelId=01&finId=120&NodeId=&setid=1235723&Pos=3&TotalCount=16&searchUrl=ok.
- 13⁹.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j002&gunchalId=av020&munchelId=01&finId=002&NodeId=&setid=15889&Pos=233&TotalCount=271&searchUrl=ok.
- 13¹⁰.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g028&gunchalId=av045&munchelId=01&finId=062&NodeId=&setid=15889&Pos=85&TotalCount=271&searchUrl=ok.

- 13¹¹.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j004&gunchalId=av001&munchelId=01&finId=002&NodeId=&setid=15889&Pos=252&TotalCount=271&searchUrl=ok.
- 13¹².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a028&gunchalId=av025&munchelId=01&finId=105&NodeId=&setid=3405630&Pos=6&TotalCount=271&searchUrl=ok.
- 13¹³.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m007&gunchalId=av002&munchelId=01&finId=015&NodeId=&setid=15889&Pos=269&TotalCount=271&searchUrl=ok.
- 13¹⁴.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c005&gunchalId=av009&munchelId=01&finId=040&NodeId=&setid=3405630&Pos=39&TotalCount=271&searchUrl=ok.
- 13¹⁵.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j002&gunchalId=av007&munchelId=01&finId=011&NodeId=&setid=15889&Pos=217&TotalCount=271&searchUrl=ok.
- 13¹⁶.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h047&gunchalId=av001&munchelId=01&finId=016&NodeId=&setid=15889&Pos=172&TotalCount=271&searchUrl=ok.
- 13¹⁷.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g028&gunchalId=av010&munchelId=01&finId=019&NodeId=&setid=15889&Pos=80&TotalCount=271&searchUrl=ok.
- 13¹⁸.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g007&gunchalId=av033&munchelId=&finId=001&NodeId=&setid=15889&Pos=141&TotalCount=271&searchUrl=ok.
- 13¹⁹.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h016&gunchalId=av003&munchelId=01&finId=030&NodeId=&setid=15889&Pos=207&TotalCount=271&searchUrl=ok.
- 13²⁰.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a031&gunchalId=av016&munchelId=01&finId=022&NodeId=&setid=3405630&Pos=0&TotalCount=271&searchUrl=ok.
- 13²¹.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g028&gunchalId=av004&munchelId=01&finId=050&NodeId=&setid=15889&Pos=81&TotalCount=271&searchUrl=ok.
- 13²².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a023&gunchalId=av006&munchelId=01&finId=013&NodeId=&setid=3405630&Pos=3&TotalCount=271&searchUrl=ok.
- 13²³.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c001&gunchalId=av006&munchelId=01&finId=028&NodeId=&setid=3405630&Pos=23&TotalCount=271&searchUrl=ok.
- 13²⁴.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h047&gunchalId=av003&munchelId=01&finId=038&NodeId=&setid=1238359&Pos=171&TotalCount=271&searchUrl=ok.
- 13²⁵.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g003&gunchalId=av002&munchelId=04&finId=060&NodeId=&setid=1238359&Pos=121&TotalCount=271&searchUrl=ok.
- 13²⁶.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g003&gunchalId=av002&munchelId=04&finId=065&NodeId=&setid=1238359&Pos=1

- 22&TotalCount=271&searchUrl=ok.
- 13²⁷.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g007&gunchalId=av043&munchelId=&finId=001&NodeId=&setid=1238359&Pos=139&TotalCount=271&searchUrl=ok.
- 13²⁸.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S&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S&jwid=K31&moId=120&daId=020&gaLid=009&gaId=&yoId=&iId=&lId=&NodeId=ms_K001&setid=28399&Pos=0&TotalCount=2&vipyunid=undefined.
- 13²⁹.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g003&gunchalId=av003&munchelId=01&finId=135&NodeId=&setid=1238359&Pos=125&TotalCount=271&searchUrl=ok.
- 13³⁰.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c006&gunchalId=bv001&munchelId=02&finId=013&NodeId=&setid=15889&Pos=51&TotalCount=271&searchUrl=ok.
14. <http://saloniere.blog.me/93651998>.

원고접수: 2011년 4월 25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1년 5월 20일

2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